

[논제 1]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언어 현상들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여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뽕삽질" 부터 '머찌근' 까지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언어 현상이고, 반대로 '손주병' 부터 '등골 백팩' 까지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언어에서의 사회 규범인 언어규범에 어긋나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규범에 적합한 언어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올바르며,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언어 현상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거나 다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규범에 어긋난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들은 제시문 (가)-1의 논리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가)-1의 논지에서는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뽕삽질', '머찌근' 과 같은 어휘들은 다수가 사용하는 어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본래 어휘의 형태를 지키지 않고 줄이거나 생략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손주병', '등골 백팩' 등과 같은 합성어휘들은 합성되는데에 사용된 어휘들이 기존의 형태를 지켜 표현되기는 했지만 합성한 결과 다른 뜻이 형성되어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층만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나)의 언어들은 제시문 (가)-2의 논지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가)-2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약간의 일탈 행위는 사회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근거를 들어 일탈 행위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찌근'과 같은 단어들은 표현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손주병'과 같은 어휘들은 신조어를 탄생시켜 언어를 풍요롭게 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논제 2]

제시문 (다)에서는 마리화나 합법성에 관해 대한민국, 미국과 네덜란드가 각각 다른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마리화나 취급은 불법이지만, 미국의 경우 과거에 불법이었다가 현재에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합법이었다가 현재에 서서히 그 추세가 감소되고 있다. 이는 각 사회집단 별로 사회규범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대변한다.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사회규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라)의 자료는 여성의 지위라는 특정 사회규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A 국가에서는 1999년에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 현황이 17.2%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에 여성 지원율이 38%로 대폭 증가한 것을 통해서 A국의 여성 지위가 차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은 1999년에 여성 지원율이 38%인 것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가 A국 보다는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10년 후인 2008년에도 여성 지원율이 38%로 동일한 것을 통해 A국과 달리 여성의 지위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의 결과를 제시문 (다)의 논지에 비춰볼 때, 사회규범은 국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의 2008년 여성 참여율은 동일하지만 A국가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어 17%에서 38%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B국가는 과거와 변함없이 38%의 지원율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